

주간기도정보

2024. 10. 1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자살공화국 오명 언제까지... ‘자살률’ 9년 만에 최고

하루에 자살로 사망 38.8명, 역대 최고치 기록한 10대 자살률



지난해 국내 자살률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보다 적극적인 돌봄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1일 평균 38.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수)도 8.5% 늘어난 27.3명을 기록했다.

자살은 10-30대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했다.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전년(7.2명) 대비 10.4% 증가해 역대 최고이다. 20대에서는 사망자 중 52.7%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률 증가 원인을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묻는 문항(자살은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8년 조사에 비해 각각 6.2%포인트(25.0%→31.2%), 2.9%포인트(24.5%→27.4%)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이 10.7명인데, 한국은 지난해 기준 24.8명으로 압도적 1위다. 평균의 2배가 넘고 2위인 리투아니아(17.1명)와도 격차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살 문제를 개인의 의지만 탓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는 등 정신건강대책 강화에 나섰다.

자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도 자살자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자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돈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는 “코로나가 터지고 자살이 소폭 줄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보고 그때 결과가 ‘유보된 자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회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죽음의 행렬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한국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사람들의 정서적 돌봄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1-2)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주님의 형상인 이 땅의 영혼들이 소망을 잃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의 가치에 파묻혀 자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미혹하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주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잠잠치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여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사랑으로 깨어난 이들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라”

북한, 남북 육로 끊고 요새화 공사...합참, '내부 인원 외부 차단 의도'로 추정
중려 연결 도로 점검...전쟁 시 물자 운반과 관련된 도로 점검하는 중요한 사업



최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쪽 국경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상징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이 평양·남포·나선·개성 등 주요 대도시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보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된 도로에 대한 집중 점검 지시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도시인 나선시에는 '전쟁 시 물자 운반과 관련된 도로를 점검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각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이 노력(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보수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가 덧붙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나선시에는 중국 취안허(圈河) 세관과 연결되는 도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닿아 있는 도로가 있다”며 “상부에서는 일단 유사시 전시 물자 운반을 위해 이런 도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출처: 북음기도신문, 데일리NK 종합).

그가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이사야 57:14-15)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잠언 6:16-19)

하나님, 한국을 적대 국가로 정의하고 통일 지우기에 급급했던 북한이 이제는 남측과 연결되는 육로마저 완전히 차단, 봉쇄하여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는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자신의 체제를 지켜내려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짝하여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려는 김정은 정권과 사탄의 도모를 꾸짖어 멸하여 주소서.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며 자유를 향한 소망을 짓밟는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여 심령이 소생게 되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거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사 자녀 된 생명으로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학대 피해 쉼터’ 아동 15%는 영유아...연령대별 돌봄 절실

아동 쉼터 없는 지역도 122곳 달해



학대 피해를 입은 뒤 분리 조치를 통해 쉼터에 입소하는 아동 가운데 6세 미만 영유아가 1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122곳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쉼터에 입소한 학대 피해 아동의 14.5%(78명)가 6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지난해 53명, 올해 25명이 쉼터에 입소했다.

이 중 1세 미만 영아는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 6명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아동은 연령대별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쉼터는 별도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영유아가 쉼터에 입소할 경우 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 연령별 종사자 기준이 다른 것처럼 쉼터에서도 아동 연령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150개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299곳 가운데 122곳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1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후 당시 105곳이던 쉼터를 2025년까지 24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게 보인다.

쉼터에 수용되는 피해 아동 비율도 저조했다. 지난해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 2만 5,739명 가운데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404명(1.6%)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쉼터에 수용된 피해 아동은 학대 피해가 신고된 전체 아동 1만 2,421명 중 133명(1.1%)에 그쳤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전담 공무원은 재학대 우려 등 요건을 따져 피해 아동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동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즉각 분리 조치에 반발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데, 이를 뿌리치고 아이들을 부모와 떼어놓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전반적으로 즉각 분리 제도와 관련한 학대 행위자들의 민원이 많다”며 “공무원들의 분리 시도 주저로 이어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이들이 없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분리되어야 할 사건인데 분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제때 분리한 뒤 학대 행위자가 변하도록 충분히 상담하고, 가정이 안전해지면 아이를 돌려보내야 재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연합뉴스 종합).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에베소서 5:1-2)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이사야 31:5)

하나님, 부모와 자녀는 그 생명이 결탁되어 있건만 학대로 인해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만큼 가정이 깨어져 버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사회 제도와 기관의 도움이 가정의 근본적인 회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사 부모 세대가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진리의 빛을 받게 하소서. 이들을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자기 자녀들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옵소서. 지금도 학대당하며, 부모에게 분리된 아이들의 상한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음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